

투데이 칼럼

삼국시대 금귀걸이가 전북에서 가장 많은 '장수군'

금 (GOLD)은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노란색을 띠는 금속으로 귀속속의 제약이 없는 광물이자 사람들의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또한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그 영속성과 희귀성으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과거의 흔적 속에서도 금과 관련된 유물은 항상 최상급으로 여겨지며 금이 출토되면 그 유적의 역사성과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얼마 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에 자리한 가야 무덤에서 하트모양 금귀걸이(심엽형)가 출토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필자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장수군 내의 삼국시대 유적지에서 확인된 금귀걸이의 개수가 몇 점이나 되는지에 관하여 문화관광과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검토해 보았다.



최 훈 식
장수군수

장수군 1호 국가사적인 동촌리고분군을 비롯하여 장수읍 노하리, 계남면 호덕리, 산서면 봉서리와 하월리 장계면 삼봉리, 천면면 삼고리 고분군에서 총 23점의 금귀걸이가 출토되었다. 동촌리고분 28호분에서 출토된 은귀걸이 2점을 포함하면 그 수가 25점에 이른다. 금을 소재로 만든 귀걸이는 주로 삼국시대에 제작되었는데 특히 가야에서는 용이나 봉황무늬가 있는 봉근 고리칼과 더불어 무덤 주인의 위계를 상징하는 중요 유물로 알려져 있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금귀걸이의 수 중 가장 많은 양의 금귀걸이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이다. 문화유산의 고장이라 불리는 남원, 익산, 고창 등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그동안 장수군은 역사문화의 변방으로 취급되었으나 하지만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학술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 위에서 보는 듯 고대 역사문화의 맛집이자 보고(寶庫)로 탈바꿈되고 있다. 흔히 역사는 불변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불과 백 년 정도이며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앞으로 장수군의 역사문화는 기대해 볼만하다. 긴 호흡으로 천천히 우리의 어제를 둘러볼 때 비로소 우리 지역의 찬란했던 역사문화가 다시금 살아 숨 쉴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장수군의 역사문화는 교과서를 재편해야 할 정도의 역동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수군의 역사문화는 화제성이 아닌 꾸준함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금귀걸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진정성 있는 역사가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장수군의 역사문화가 제대로 평가받을 날을 기약하며 그 기대감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사설

공덕면민 효행장 동촌 문경주씨

제15회 공덕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9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면민의 장 수상자가 있었다. 수상자 가운데 '효행장'은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효행장'은 공덕면 회동리 동촌마을 문경주씨가 수상했다. 문경주씨는 101세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부친의 손과 발이 되어 주위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인정됐다. 아들인 문경주씨도 만만치가 않은 나이이다. 올해 70세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추스르기에 쉽지 않은 나이에 아버지까지 모신 정성은 칭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편 공덕면 지역발전협의회는 공덕면민의 날을 맞아 전에 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난 8월 25일 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공익장, 애향장, 특별상, 효행장, 다자녀모범상,

공로상의 6개 분야 수상자가 결정됐다. 공익장을 수상한 유인초씨는 서리마을의 이장이자 환경지킴이로 활약했다. 애향장은 공덕면 출신이자 현 익산시 오산면 코코밭의 유인철 대표를 선정했다. 유인철 씨는 공덕면 황강초등학교의 총 동문회장이자 대한민국의 제빵 명장이다. 특별상은 경소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에 힘쓴 공로로 손길마을 백상훈씨가 선정됐다. 다자녀 모범상을 수상한 서원마을의 김운주씨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3명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며 어른 공경과 건장한 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공덕면민의 장 시상식은 9월 9일 공덕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공덕면민과 출향인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됐다. 면민의 장 시상식을 통해 고향 사랑 정신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전북 노인자원봉사단장 교육

전북 도내에서도 갈수록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확대되면서 봉사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전북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가 '전북 노인자원봉사단장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전주 15개 봉사단과 무주 4개 봉사단, 전북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전북연합회 소속으로 각각 5개 봉사단의 단장들이 참석했다. 장은경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장은 "노인 자원 봉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이 되는 비결이며, 지역 사회에 헌신하는 일"이라며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는 2023년 100개 노인자원 봉사단을 조직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 해소 및 각종 캠페인 활동, 환경 정화 및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인 직장 퇴직 등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다. 사회와 가정에서의 권위도 약화된다. 배우자 사망으로 역할 상실, 노인의 의존성 증가, 소외와 고독을 느끼게 된다. 삶의 의욕이 상실되면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통해 자긍심 회복, 적극적인 자기표현, 성취감의 경험, 적절한 가족관계 유지 등의 효과를 얻어 자기 성숙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가가 많은 노인은 자원봉사가 정신적인 안정과 삶의 보람을 가져다준다. 노인이 인생의 선배, 생활의 지혜와 경험을 갖춘 자로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해 나갈 때에 노인 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갈수록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년기의 사회 활동 참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자원봉사는 노인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천년간만 이주민 어린이 바라보는 이탈리아 경관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섬에서 이탈리아 경찰관이 비호방을 놓아 한 이주민 어린이를 바라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내로 유입되는 이주민 수가 폭증하자 추방할 이주민들을 기존 139일에서 최대 18개월까지 구금하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가능한 한 많은 이주민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이탈리아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도와주세요"



1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교사와 간호사들이 굶어 인상과 복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참가 여성이 들고 있는 손팻말에는 "월급으로 배고피요, 도와주세요" 등이 쓰여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